당신을 배움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베다니 공부방 안내

"함께 모여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따뜻한 시간"

1월 13일 (화) 20시 | 조동호 박사 • 스프링필드장로교회의 유언 1

2월 10일 (화) 20시 | 조동호 박사 • 스프링필드장로교회의 유언 2

3월 10일 (화) 20시 | 조동호 박사 • 스프링필드장로교회의 유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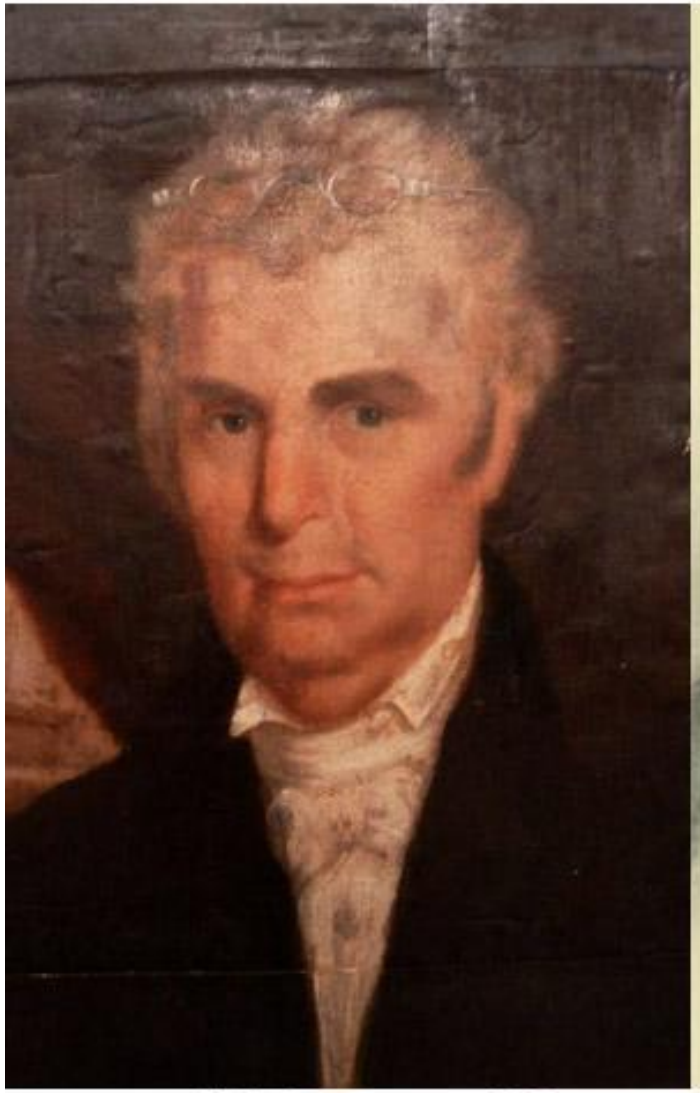
4월 14일 (화) 20시 | 백종구 박사 • 미국 그리스도의교회의 해외선교와 독립선교의 발전

[온라인(Zoom) 참여 방법] 회의 ID: 867 2167 3476 암 호: 암호: 402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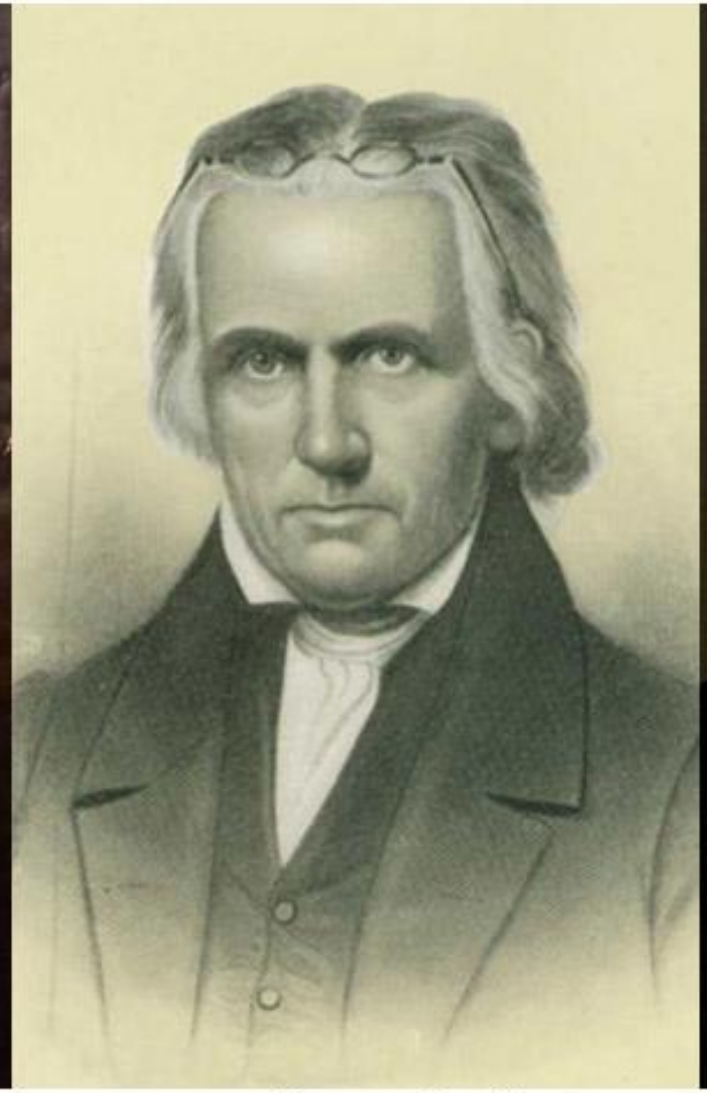
문의: 조기연 총무 (kiyonjo@hanmail.net)

환원운동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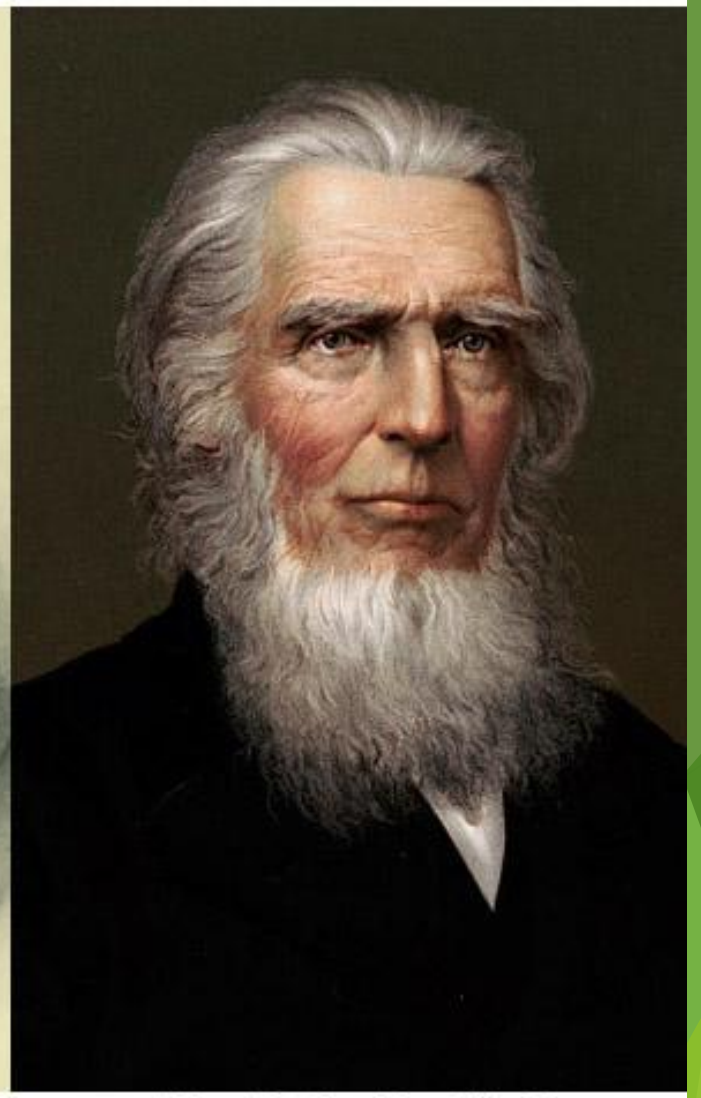
초기 스톤_캠벨 운동의 3대 문서



발톤 W. 스톤
스프링필드 장로회 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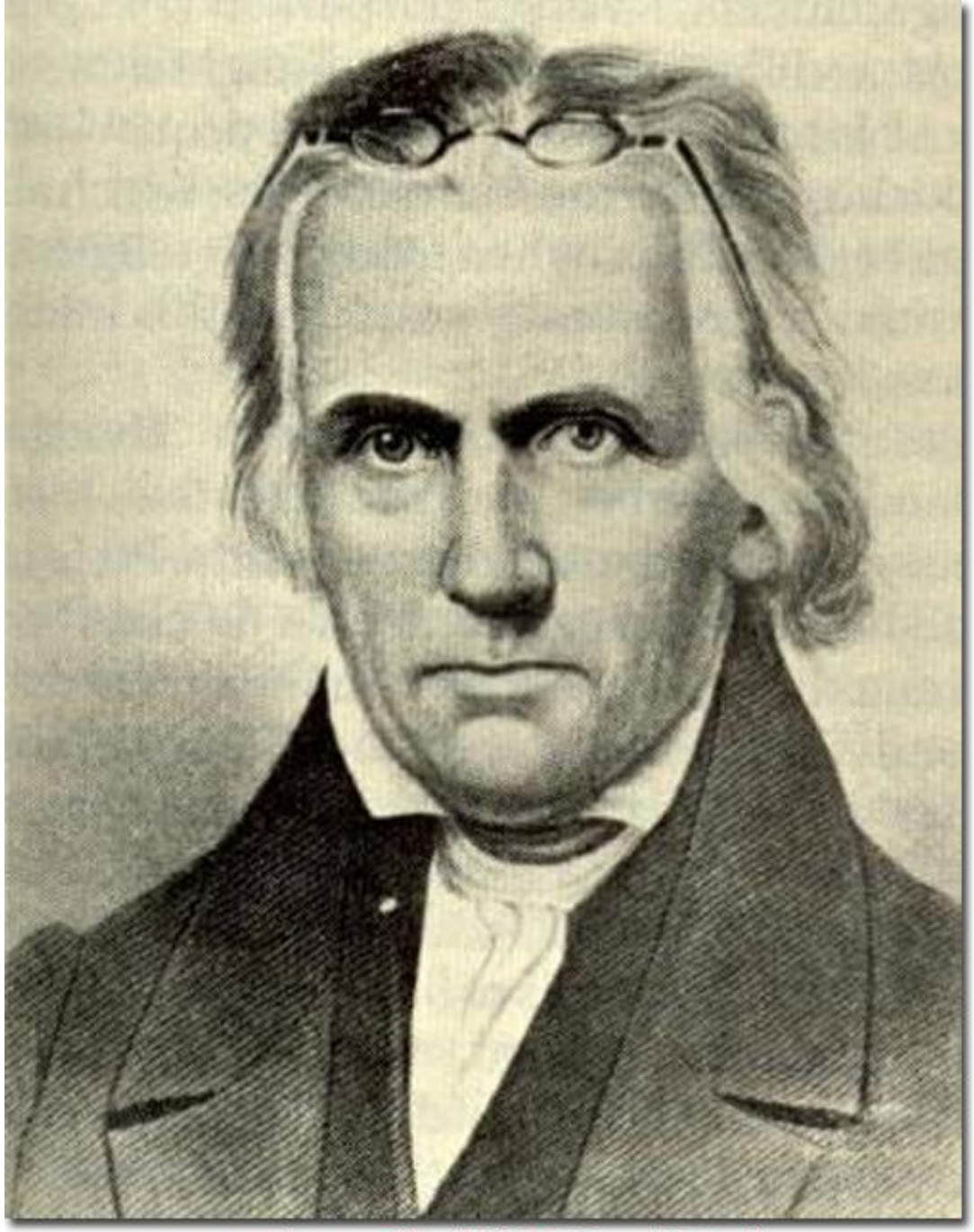


토마스 캠벨
선언과 제언



알렉산더 캠벨
율법에 관한 설교

토마스 캠벨과 〈선언과 제언〉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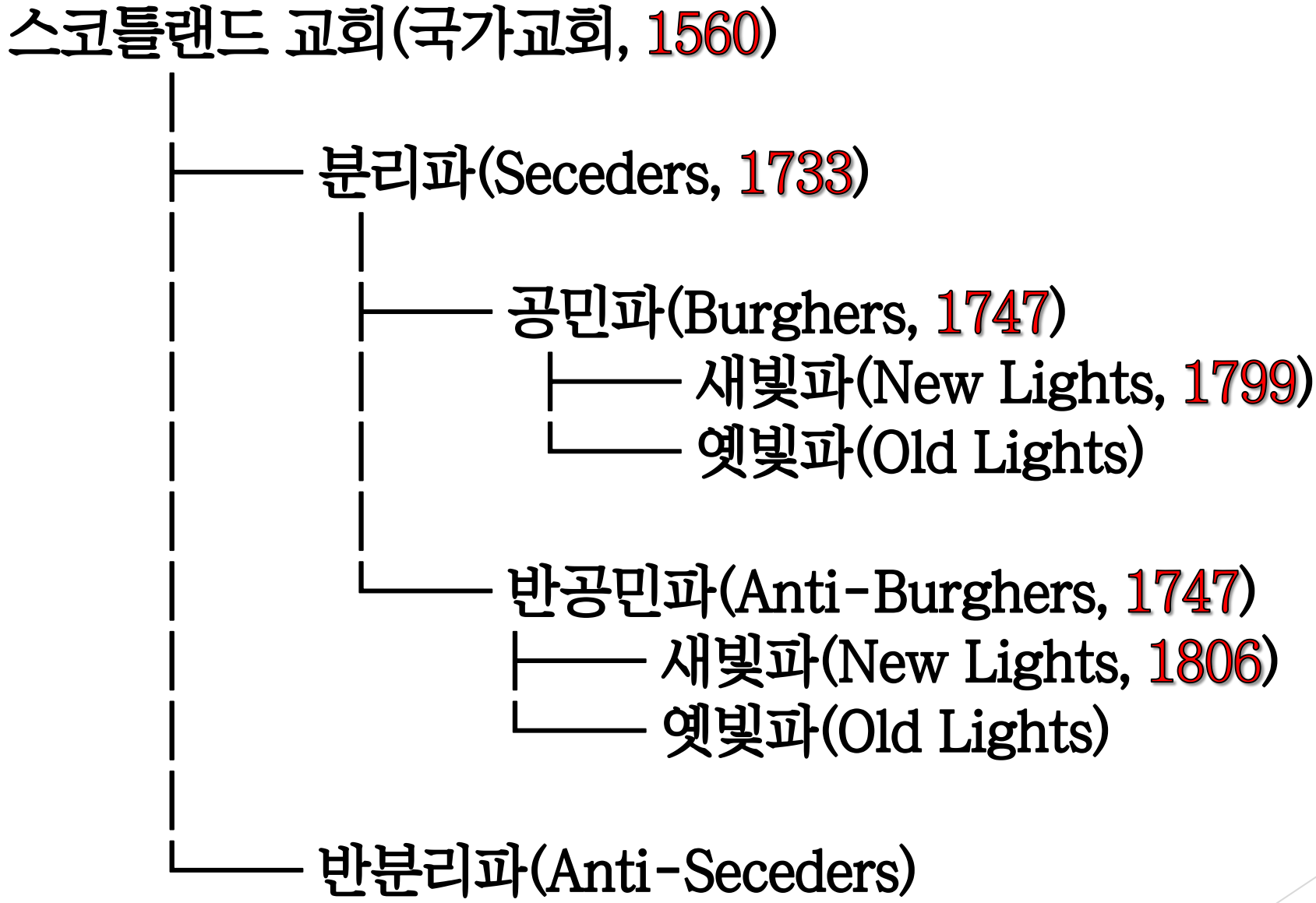


토마스 캠벨(1763-1854)

토마스 켐밸의 강대상
1786년 제작되어 캠벨이 시무(1798-1807)
했던 북아일랜드 리치 힐 소재 아호리 교회
에서 150년 이상 쓰이다가 1986년 미국
아빌렌 기독 대학교에 기증되어 현재까지
보관되고 있는 강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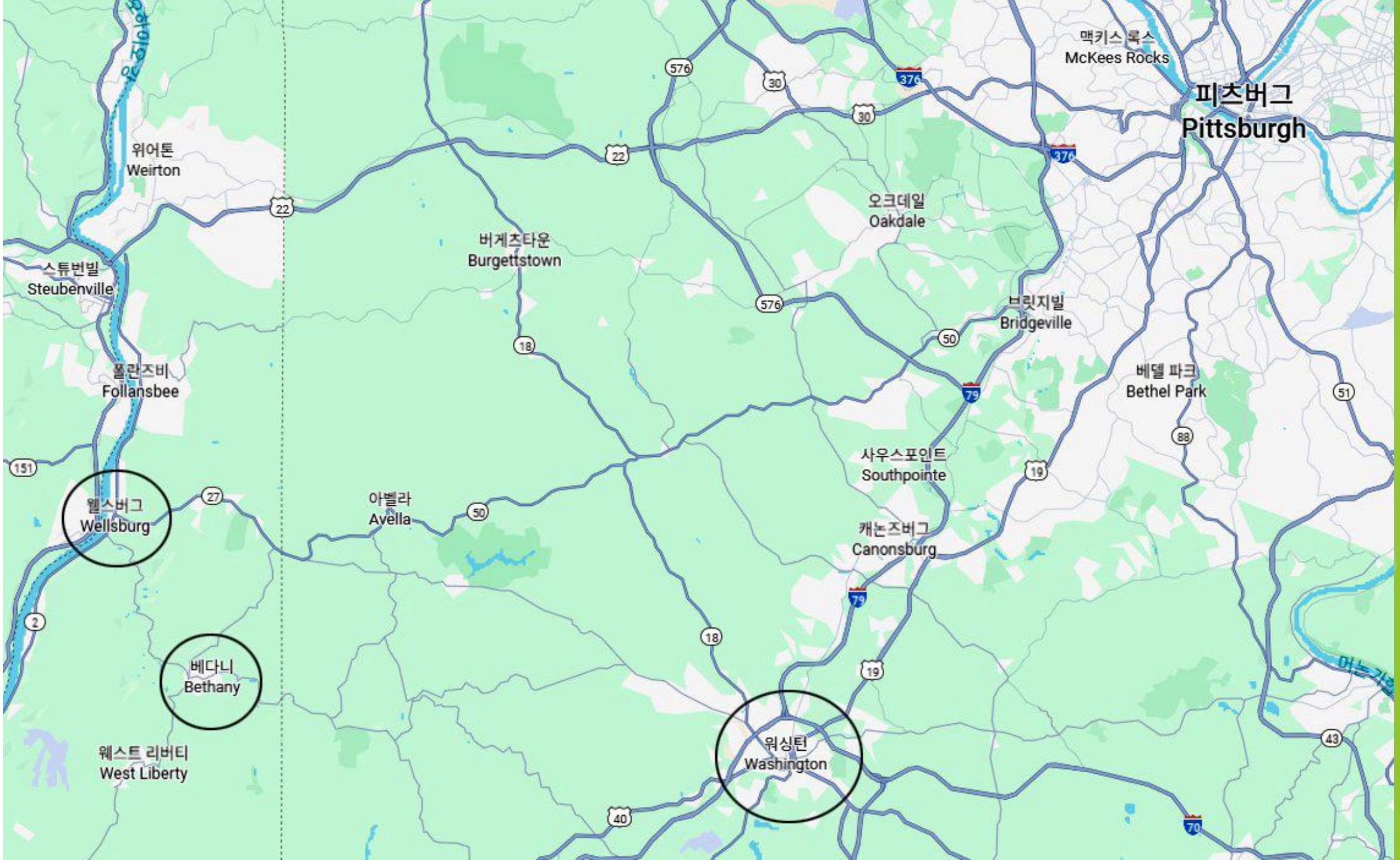
- 토마스 캠벨은 아일랜드 출신의 옛빛, 반-버거, 스코틀랜드 분리파 장로교회(Old Light, Anti-burgher, Scotch-Seceder branch of the Presbyterian Church)에 소속된 목사였다. 그는 분열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
-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존 녹스(John Knox)는 스위스에서 장 칼뱅 밑에서 공부하였고, 1559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다. 이듬해인 1560년에 첫 장정(Book of Discipline)이 기록되었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스코틀랜드 교회(평신도 장로 대의제 교회)가 탄생되었다.
- 1712년에 영국 의회가 'Church Patronage Act'(1711)를 통과시켜 교회 목사 임명권을 지주(patrons)에게 돌려줌으로써 분리파(Seceder)와 반-분리파(Anti-Seceder, 스코틀랜드의 국가교회)로 분열될 조짐을 보였다. 분리파 교회들에서는 목회자들을 교회가 직접 선택한 반면, 반분리파 교회들에서는 목회자들을 교구 교회를 짓기 위해 기부된 부동산 세습의 소유자(지주, patron)가 임명하고 노회가 승인하는 방식이어서 회중의 불만이 매우 컸었다.

- 1747년 분리파교회에서 버거들(Burghers, 도시행정관들)이 취임시에 선서("나는 진정한 종교를 지지하고 보호하겠다")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버거파와 반버거파로 분열하였다. 반버거파에서는 국가교회(스코틀랜드 교회)를 "진정한 종교"로 인정하는 표현이므로 양심상 절대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1749년에는 The General Associate Synod (Anti-Burghers, 총연합노회)와 the Associate Synod (Burghers, 연합노회)로 총회가 나눠졌다.
- 1799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과 본래의 국민 계약서에 주장된 도시의 종교행정관들의 권한, 곧 그들이 종교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대 각성운동(Great Awakening)의 영향으로 성경으로부터 '새빛'(new light)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쟁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또 다시 하나님의 은총의 새로운 경륜을 믿고 대 각성운동에 합류했거나 그 운동으로 인해서 설립된 교회들인 새빛파와 기존 질서와 전통을 옹호했던 옛빛파로 나눠지게 되었다. *토마스는 분리파, 반-버거파. 옛빛파 장로교 소속이었다.


스코틀랜드 교회(국가교회, 1560)
분리파(Seceders, 1733)
공민파(Burghers, 1747)
새빛파(New Lights, 1799)
옛빛파(Old Lights)
반공민파(Anti-Burghers, 1747)
새빛파(New Lights, 1806)
옛빛파(Old Lights)
반분리파(Anti-Seceders)
독립교회(분리파·재결합파·새빛파 그룹 중 일부, 1760~1830)

- 캠벨 부자는 아일랜드 얼스터의 반(反)-버거 옛빛파 분리교회 노회 소속이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새빛파와 독립교회들에 더 기울었다.** 그들은 리치 힐 소재 독립파 교회에서 **홀데인과 존 워커**와 같은 개혁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총연합노회'(반-버거파) 소속이었던 토마스는 버거파와 반-버거파 간의 연합을 위해 노력했고, 공식 제안서를 냈던 리치 힐의 한 협의회에 참석 했었고,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연합노회'(버거파) 모임에 파송되어, 비록 통과되지 않았지만,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주장을 펼친 바가 있다.
- 18세의 청년, 알렉산더는 그 연합 제안서에 대한 부친의 열정과 또 그 실패에 따른 깊은 낙담을 목격하였다. 그는 부친이 담당한 애호리 회중(교회)에 대한 교육, 사역, 그리고 그의 반-버거 노회를 이끄는 일 등의 활동 일정에서 부친의 부담을 직접 경험했다.
- 캠벨 부자는 애호리 교회가 모임을 갖지 않는 주일 저녁에 리치 힐에 있는 **독립파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했는데**, 이는 부자에게 아일랜드와 기타 지역의 종교상황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 미국에서 토마스는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 카운티에 있는 강단에(교회의 설교자로) 배속(配屬) 되었다. 워싱턴 카운티는 피츠버그 남서쪽 아래 펜실베이니아주 서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 가까운 곳에 수년 후 알렉산더 캠벨의 주거지이자 활동 무대가 된 베다니(Bethany, West Virginia)와 웰스버그(Wellsburg, West Virginia)가 위치해 있다.
- 토마스는 예배 때 주의 만찬 테이블에 성찬을 진설 했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성찬을 받도록 초대했다. **그로 인해서 토마스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파문을 당했다.** 그 당시 장로교의 관행은 **'닫힌 성찬식'**(Closed Communion)이었다. 오직 특정 교회의 회원(등록교인)들만이 일년에 두서너 차례 성찬식이 있는 주일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성찬식이 거행되는 주일 전 몇 주간 그들은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지 여부를 인정받기 위해 장로들에게 가정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다. 만일 검사에 합격하면, 금속 토큰이 주어질 것이고, 성찬식이 거행되는 주일에 성찬을 받기 위해 그 토큰을 제시해야 했다. 자신이 성찬식에 참여할 합당한 사람이라는 증거(토큰)를 보여줘야 했던 것이다.


맥키스 록스
McKees Rocks
피츠버그
Pittsburgh
위어톤
Weirton
오크데일
Oakdale
버게츠타운
Burgettstown
스튜번빌
Steubenville
브릿지빌
Bridgeville
폴란즈비
Follansbee
베델 파크
Bethel Park
사우스포인트
Southpointe
웰스버그
Wellsburg
아벨라
Avella
캐논즈버그
Canonsburg
베다니
Bethany
웨스트 리버티
West Liberty
워싱턴
Washington

아래 흑백 토큰 설명

- 스코틀랜드 연합노회에 소속된 '어바인 리릴프 교회'(Irvine Relief Church)가 사용했던 성만찬 토큰.

새겨진 문자의 의미

- **Assoc:** Associate (Presbyterian)
- **Irvine:** Irvine in Scotland
- **Cong:** Congregation

알렉산더 캠벨,
그의 개혁의 파장과 비상

- 토마스 캠벨은 **1808년 5월 들어, 자신의 소송 사건을 필라델피아에 있는 북미 총연합노회에 항소**하였다. 노회는 캠벨의 목사 지위를 회복시켜주면서 토마스에게 "다시는 교단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관습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 토마스는 심의회장을 떠날 때, 자신은 교단에 남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것이 분명히 이해되는 한, 나는 성경에서 배타적으로 가르친 것이나 사도적 선례가 보증된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다시는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 8월에 집에 돌아왔으나 소속된 차티어스 장로회는 토마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어떤 지위도 부여하지 않았다.
- 9월에 토마스는 차티어스 장로회와 그 총연합노회의 조치를 규탄하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또 이듬해인 1809년 5월 노회 모임에서 토마스는 일명, **"총연합노회에 보내는 선언과 제언"**이라는 문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로서, 그는 그들의 권력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

- 토마스 캠벨은 어떠한 목사직도 받지 못했고, 수입이 없었으나, 서부 펜실베이니아에서 지지자들이 그를 돕기 위해 앞장서 나섰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인근에서 자신의 사상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
- 이른 여름에, 지지자들은 일의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조직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토마스는 아브라함 올터즈의 집에서 지내며 토론의 가능성이 보이는 모임을 주최했다.** 토마스는 성서의 명확한 가르침과 복음사역의 기초인 교회 일치에 관한 자신의 개념들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들은 토마스가 아일랜드에서 수년 간 얼스터 복음주의 협의회를 이끌었던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었다.**
- 비록 토마스는 얼스터의 반(反)-버거파, 옛빛파, 분리교회 (연합)노회 소속이었지만, **얼스터 복음주의 협의회의 창립과 활동에 관여하다가 소속 노회의 반대로 협의회에서 탈퇴**한 바가 있다.

- 모임의 진전을 토론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토마스 캠벨의 제안을 듣고 매우 신이 났다. 그가 원리를 수행할 단체는 "성서가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여야 한다고 제시했을 때, 어떤 이들은 이게 유아 세례 관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하였다. 세례는 그 그룹에서 이미 논쟁적 주제였다. 그래서 캠벨은 이 "성서의 원리"의 채택이 유아 세례의 거부로 이어질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설명함으로써 그들을 안심시켰다.
- 8월경에 다시 모였을 때, 토마스는 복음 전파를 위한 협의회로 '워싱턴 그리스도인 협의회'를 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마스는 그 협의회를 자신이 11년 전에 협조하여 세웠던 '얼스터 복음주의 협의회'의 재현과 거의 근접한 것이 되게 했다.
- 모임은 토마스의 제안을 수용했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조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토마스에게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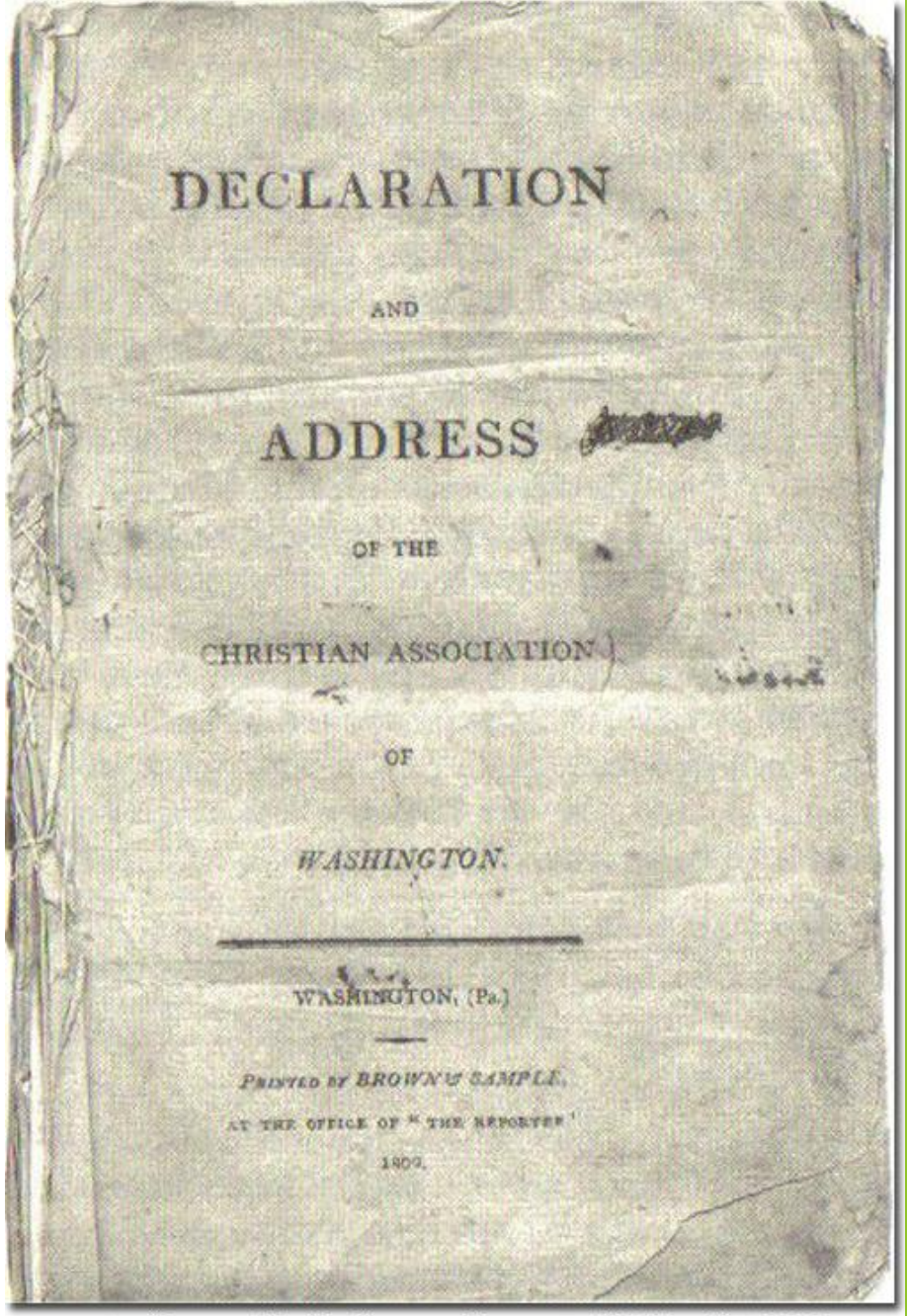
- 그해 1809년 9월경에, 토마스 캠벨은 그의 두 번째 <선언과 제언>을 마무리 지었다. 이것은 분열의 문서가 아니고, 순전한 복음주의적 기독교를 증진하기 위해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아갈 것을 요구한 문서였다.
- 펜실베이니아, <워싱턴의 그리스도인 협의회의 선언과 제언>은 이 단체가 "원래의 기준에 명백히 부합함을 보여주고, 성경에 명확히 명시된 단순한 본래 형태의 기독교를 실천에 옮기며,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명시적 표현이든지 혹은 승인된 전례(前例)에 의해서든지'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헌법, 신앙, 혹은 예배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고, 인간의 권위나 사적인 의견, 혹은 인간의 고안들의 어떤 것이나 혹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의무의 문제로써 어떤 것도 주입시키려 하지 않는 목회자들에 한해서 힘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지지하고 후원할 것"을 약속했다.

- 얼스터의 복음주의 협의회(ESU)의 창립 문서에서와 같이, 교파와 정파들을 가로지르는 협력은 워싱턴의 그리스도인 협의회의 의제에서 중심 사항이었다. 교회의 일치, 평화, 순수가 "가장 혜택 받고 있는 이 나라에서" 재개될 수 있음을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 누구든 만일 성서를 있는 그대로의 단순한 의미로 받아드린다면, 모든 사람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진리에 다 동의할 것이다. 실제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추론과 의견, 특히, 강제적인 신앙고백서가 분열의 원인이라며, 성서에서 명확히 가르치지 않는 개인의 의견들은 어느 것이든 포기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교회의 원래 헌법적 일치"로 돌아갈 수 있고, 이 행복한 일치에서, 평화와 관용으로 모든 형제와 더불어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 그리스도인 협의회’ 결성과 <선언과 제언> 작성 과정에 대한 Harvey C. Bream Jr. 목사의 강연내용 소개

<선언과 제언>
(the Declaration and Address)
http://kccs.pe.kr/rm04.htm
http://kccs.info/선언과 제언.pdf

- 우측 사진은 토마스 캠벨의 <1809년의 선언과 제언>의 전면 표지이다. 토마스는 이 문서에 아일랜드의 얼스터의 복음주의 협의회(ESU)의 교회 일치 개념을 반영하였다.


DECLARATION

AND

ADDRESS

OF THE

CHRISTIAN ASSOCIATION

OF

WASHINGTON.

WASHINGTON, (Pa.)

PRINTED BY BROWN & SAMPLE,

AT THE OFFICE OF "THE REPOR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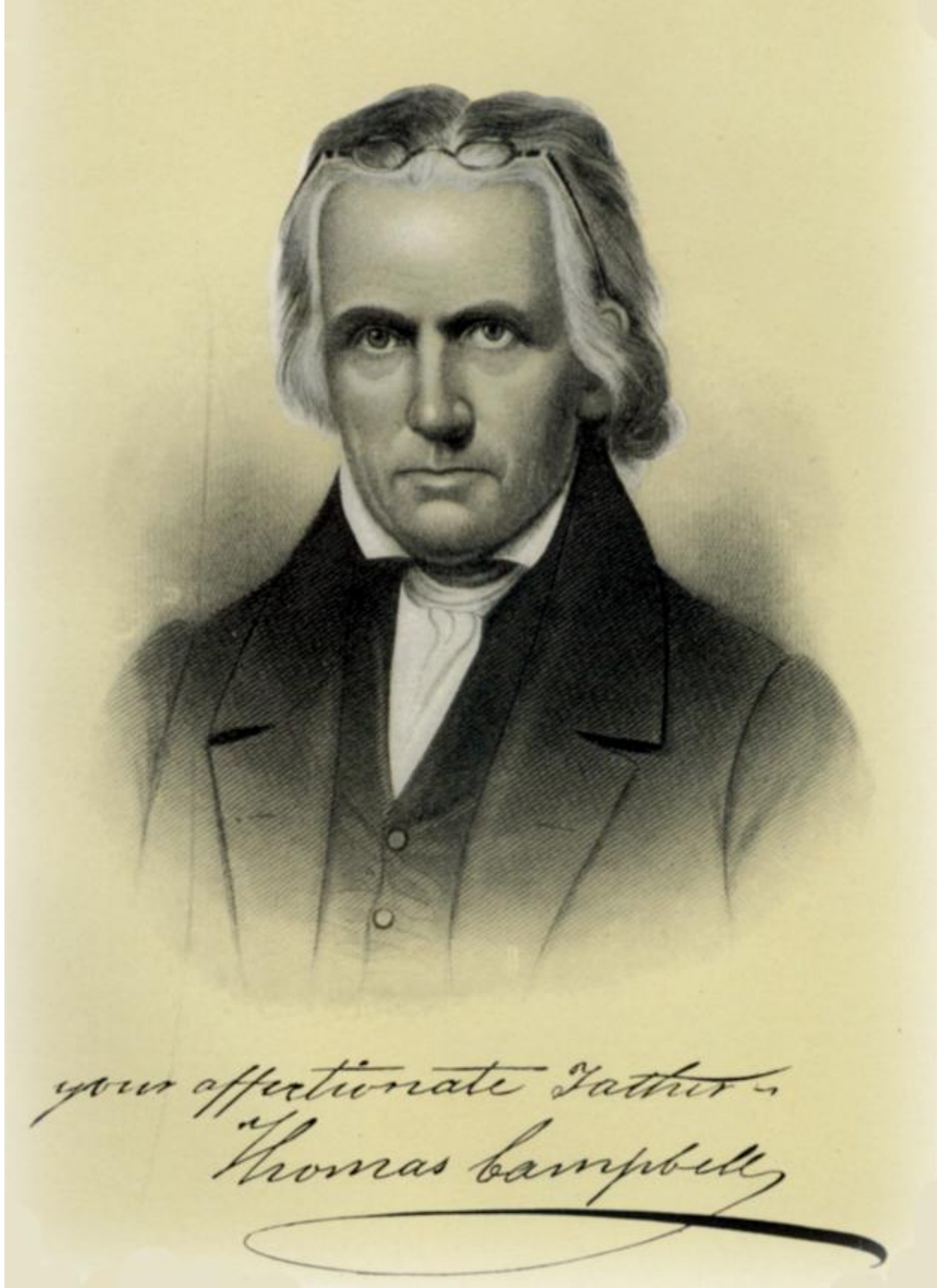
1809.

토마스 캠벨이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해서 1809년에 발행한 〈선언과 제언〉

- 캠벨은 <선언과 제언>에서 무엇보다 먼저 분열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라고 열렬히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 그는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조(헌법)적으로 하나이다."고 확언하였다.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 됨의 일치를 찾을 수 있다고 그가 단언한 균등하게 적은 13가지 명제들은 옛 사도전통의 질서의 회복(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에 대한 열렬한 탄원으로 결론을 내리기까지 하였다.
- 그의 청중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옛 길을 다시 걷는 것과 그가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고 말했을 때 그 진술이 있는 많은 성구들을 승인하였다.

- 그가 한 그 말들과 죽음과 같은 고요함이 그 청중을 감쌌는데, 한 남성이 말을 하려고 일어설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말하였다. "그러면, 캠벨 씨, 만약 우리가 그것을 기초로 삼으면 유아세례는 종식(終熄)됩니다." 캠벨은 일어나 청중을 보고 섰다. 그리고 그는 아직 그 특정한 주제에 대해 어떤 결론에 도달할 만큼 그 자신이 충분히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가 말한 진리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물론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유아 세례를 찾을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고 단언하였다.
- 토마스 애치슨(Thomas Acheson, <선언과 제언>의 서명자, 워싱턴 그리스도인 협의회의 회계)이라는 사람이 너무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을 터트리며 극적으로 외쳤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것을 내 마음이 포기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도한 감정표현에 너무 당황해서 그 방을 나가려고 돌아섰다.

- 그러나 그가 나가기 전에 또 다른 남자가 벌떡 일어나 말하였다. “잠깐만요, 애치슨 씨. 당신이 방금 인용한 성경말씀에는 침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조치들도 그 회의에서 취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되짚어보았고, 이것을 환원운동으로 불리는 만남의 시작이라고 불렀다.



워싱턴 카운티 그리스도인 협의회 결성
(Formation of Christian Association of Washing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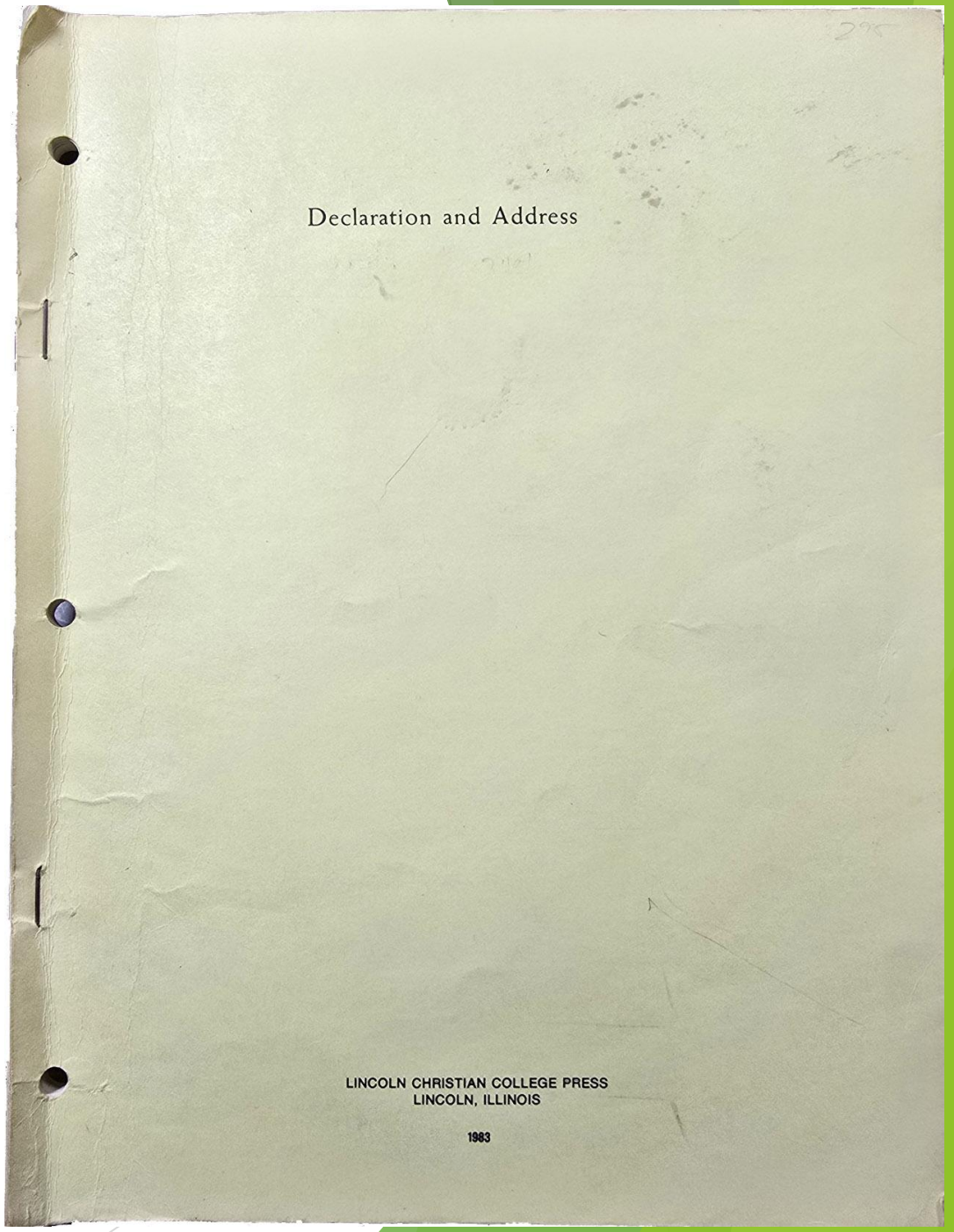
- 그 모임 직후에 그들은 '워싱턴 카운티 그리스도인 협의회'를 결성하였다. 그들은 제도적 교회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날은 그 회복된 교회 곧 신약성서교회와 그 속에 있는 이상(ideal)을 찾는 회복(환원)이 시작된 날이었다.
- 이 일이 있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캠벨 가족이 신세계의 해안에 상륙하였다.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필라델피아와 뉴욕 사이의 그 길 어디선가에서 만났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가 인쇄소에서 막 찾아가지고 온 <선언과 제언>의 교정쇄를 꺼내 그것을 아들에게 건네며 그의 반응이 어떨지를 지켜봤다고 한다.

- 그들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고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아일랜드)의 아들은 독립적으로 성경을 공부했고, 기본적으로 이곳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었던 그의 아버지와 장로교인들이었던 자들이 가졌고, 아래 켄터키 주에 있었던 발톤스톤과 장로 교인들이었던 자들이 가졌으며, 저 멀리 뉴잉글랜드에 있었던 존스(Jones)와 스미스(Smith)와 침례교인들이었던 자들이 가졌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었던 오켈리(O'Kelly)와 해거드(Haggard)와 감리교인들이었던 자들이 가졌던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 알렉산더는 자신이 읽고 있는 것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는 그의 말을 멈춰 세우고 자신의 여생에 대한 결심을 발표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단일성의 일치(the unity of oneness)를 위한 이 호소의 이러한 원칙들을 옹호하는 일에 헌신할 작정이라고 하였다.

<선언과 제언>에 대한 해설 (the Declaration and Address)

http://kccs.info/선언과 제언.pdf

- <선언과 제언>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워싱턴 군에 조직된 '그리스도인 협의회'의 총무였던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1763-1854)이 초안하여 회계였던 토마스 애치슨과 공동으로 1809년 9월 7일에 발표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헌장이다. 이는 '선언'과 '제언'으로 구성된 56쪽(초판의 경우)의 소책자이다. 그리고 1830년대 이후에 '부록'과 '후기'가 추가 되었다. 필자가 가진 책은 이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된 복사제본책으로 총 90쪽이다.



펜실베이니아 주 워싱턴
웰스(웨일스)가 360번지에 소재한
웰시 농장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는 <선언과 제언>을 1809년 8월에 Welsh Farm에서 작성하였다. 1809년 9월 7일 발표된 이 문서는 펜실베이니아 주 Washington Observer Reporter에서 인쇄되었으며, 환원운동 출발점의 한 축이 되었다.

- 이 책자에서 강조된 내용은 성서의 권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그리고 신앙 양심의 자유이다.
- '선언'에서는 '그리스도인 협의회'의 9가지 결의 내용을 적었고,
- '제언'에서는 분열의 무서운 결과들을 지적하면서 분열을 멈추고 일치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서 일치를 향한 13개조의 명제를 발표하였다.
- '부록'에서는 '제언'에서 주장한 특정 부분을 확대 설명하였으며, 가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후기'에서는 전도단 발기를 위해서 취해야 할 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 '제언'에 나타난 13개조의 명제(Thirteen Propositions)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핵심헌장이다.
- 필자가 번역한 <선언과 제언>은 '부록'과 '후기'를 뺀 나머지 초기판에 담긴 '선언'과 '제언' 전체 내용이다.

- <선언과 제언>을 작성한 **토마스 캠벨은** 1763년 2월 1일 아일랜드 카운티 다운(County Down)에서 아키발드 캠벨(Archibald Campbell)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아키발드는 울프 장군(General Wolfe) 휘하에서 퀘벡(Quebec) 전투에 참가했던 군인 출신이었다. 그는 본래 가톨릭 신자였으나 후에 성공회로 개종하여 충실한 신자가 되었다. 토마스 캠벨은 아버지 아키발드에게서 성공회 분위기의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았다. 그도 또한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이 매우 깊었고, 성서를 즐겨 읽었다. 그가 받은 가정교육(training and discipline)은 매우 교훈적(didactic)이며, 성서적이고, 엄격한 것이었다. 특히 그는 성서와 브라운의 교리문답서(Brown's Catechism)를 매일 읽고 암송하였다. 이런 가정 교육의 영향으로 후에 토마스 캠벨은 "예리한 비평가, 엄격한 규율가, 헌신적인 신학자가 되었고, 알렉산더 캠벨을 같은 방법으로 교육시킨 훌륭한 아버지였다.

- 토마스의 꿈은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한동안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래지 않아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확신하였고,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 **토마스 캠벨은 훌륭한 교육을 받은 목회자였다**. 그는 1451년에 세워진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Glasgow) 대학교에서 3년간 신학교육을 받았고, 반공민파 분리주의 장로교 소속인 휘트번(Witburn) 신학대학원에서 일 년에 8주씩 5년간 목회자 수업을 받았다.
- 목회와 교육에 전념하던 캠벨은 교회 분열의 뼈아픈 현실을 체험하게 되었고, 일찍부터 교회 연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 1798년 안수를 받은 직후, 캠벨은 이미 교파의 한계선을 넘었다고 해서 지방회로부터 책망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때에 그의 교회는(his group of Presbyterians) 20년간 지속된 믿음의 본질에 대한 표독한 논쟁에 개입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 논쟁에 활동적으로 개입하면서, 엄격한 교파주의를 완화시켜 보려고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 1802년 캠벨은 두 분리주의 교파가 연합하기 위해서 조직한 첫 위원회에 반공민파 대표로 활동하였고, 1804년 벨파스트(Belfast) 지방회 때와 1805년 룰간(Lurgan)에서 열린 연합 모임 때에도 연합에 대한 노력을 힘썼다. 그러나 캠벨의 형제들은 1806년 글래스고(Glasgow) 총회 때에 그의 계획에 반대하였다.
- 토마스 캠벨이 목회 하던 당시 교계의 상황은 분열을 거듭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 토마스 캠벨이 아일랜드 애호리(Ahorey)에서 목회하던 당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편협한 당파의식과 성서해석으로 인해서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었다. 1528년 2월 29일, 패트릭 해밀턴(Patrick Hamilton)의 순교 후에 개혁교회는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560년, 요한 녹스(John Knox)가 장로교회를 설립하고, 일련의 정치적 종교적 전쟁들을 치른 후에는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의 국교로서 확고한 위치에 올랐다.

- 그 유명한 국민 계약에서는 교회와 국가 모두가 배타적으로 칼뱅주의를 고수할 것을 서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1643년 그 계약이 정치적으로 수정 해석되었고, 그것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계약자들(Covenanters) 혹은 개혁 장로교인들(Reformed Presbyterians)이라는 이름아래 독립된 교회와 협의회들(societies)을 구성하였다. 그 후에 국가가 교회의 동의 없이 성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였을 때, **에베네저 에르스킨(Ebenezer Erskine)과 몇몇 목회자들이 1733년 국교와 분리하여 분리 장로교회(Seceder Presbyterian Church)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이 교단은 시의원들에게 요구되고, "국가 안에서 현재 인정된 종교"(the religion presently professed within the realms)를 지원토록 그들을 제한하는 서약이 자신들이 대항하는 국교 내에서 악습을 허용하는가의 문제로 **1747년** 갈라졌다.

- 서약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반공민파”(Anti-Burghers)가 되었고, 그것을 찬성한 사람들은 “공민파”(Burghers)가 되었다. 그리고 각 교회는 서로 자기 교회가 참 교회라고 주장하였다.
- 1799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과 본래의 국민 계약서에 주장된 도시의 종교행정관들의 권한, 곧 그들이 종교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공민파”는 “옛빛 공민파”(Old Light Burghers)와 “새빛 공민파”(New Light Burghers)로 나뉘었고, 1806년에 반공민파는 “옛빛 반공민파”(Old Light Anti-Burghers)와 “새빛 반공민파”(New Light Anti-Burghers)로 갈라졌다.
- 토마스 캠벨이 속해 있던 교회는 아일랜드의 옛빛 반공민파 분리 장로교회였다. 공민파의 서약은 순전히 스코틀랜드의 논쟁들이었으며, 아일랜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구적으로 분리되기를 고집하였다.

- 성공적인 목회와 교회 연합 운동으로 인해서 신경성 복통을 얻었던 토마스 캠벨은 의사로부터 목회를 잠시 쉬고 바다 여행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44살의 나이로, 1807년 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였다**. 미국에 도착한 캠벨은 북아메리카 노회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펜실베이니아 주 서부 지역에 위치한 차티어스 장로회(Chartiers Presbytery)에 소속되어 7월 21일 북버팔로(North Buffalo)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다.
- 그러나 그의 진보적인 생각과 설교로 인해서, 이단이란 소문이 8월 하순에 퍼지고 있었다. 9월경에는 이미 지도급 성직자들이 그에게 설교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10월 31일 이후에는 모든 설교약속이 취소되었다. 다음해 1월초에 그는 공식적으로 기소되었고, 1808년 3월 8일에는 목회사역으로부터 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1808년 9월 18일, 캠벨은 차티어스 장로회로부터 탈퇴하였다. 이런 불이익의 원인이 성서적인 교회와 일치에 대한 그의 신념과 활동 때문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 이와 같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장로교회들의 분열현상은 미국 땅에도 그대로 전달되었고, 토마스 캠벨은 미국에 와서도 북 아일랜드에서 경험했던 똑같은 아픔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들이 캠벨로 하여금 더욱 성서적인 교회와 일치 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던 원인들이었다.
- 캠벨은 몇몇 동지들과 함께 펜실베이니아 주 워싱턴 군 근처에 위치한 아브라함 올터즈(Abraham Altars)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캠벨은 설교를 하였는데,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성서가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축적되어서 결국 1809년 9월 7일에 <선언과 제언>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 토마스 캠벨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809년 8월 17일 버팔로에서 열린 한 모임에 참석한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신앙 교파들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그들 대부분이 정해진 복음 사역에 대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들은, 위에서 명명된 신앙 협의회를 조직하는 것에, 선포 이후의 목적들을 위해서, 심사숙고 후,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은 협의회를 결성하였고, 스물 한 명의 회원을 임명하여 함께 모여 협의토록 하였으며, 복음사역자인 토마스 캠벨의 도움으로, 그들 협의회의 중요한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 협의의 결과가 다음과 같은 <선언과 제언>이며, 협의회의 비용으로 협의회를 위해서 1809년 9월 7일 인쇄하기로 합의하고 결정되었다.

● ‘선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그리스도인 협의회’라 칭하였다.
2. 필요한 운영자금은 자율적인 기부금 납부에 의존하기로 하였다.
3. 다른 지역에서의 ‘협의회’ 조직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4. 협의회는 교회나 교단 혹은 통제기구가 아님을 천명하였다.
5. 성서에 입각한 단순한 복음만을 강조하였다.
6. 1년 임기의 총무, 회계, 상임위원회를 둘 것을 결의하였다.
7. 협의회 모임은 5월과 11월 첫째 목요일에 개최키로 하였다.
8. 협의회는 설교로 개회하고, 규정과 제안 및 회의록 낭독, 헌금의 순서로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9. 협의회 운영기금과 선교후원기금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개별적으로 후원하는 기금이라도 협의회 차원에서 사의가 표명되도록 하였다.

- 성서를 헌법으로 하는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 강조된 '제언'에서는 13개 명제가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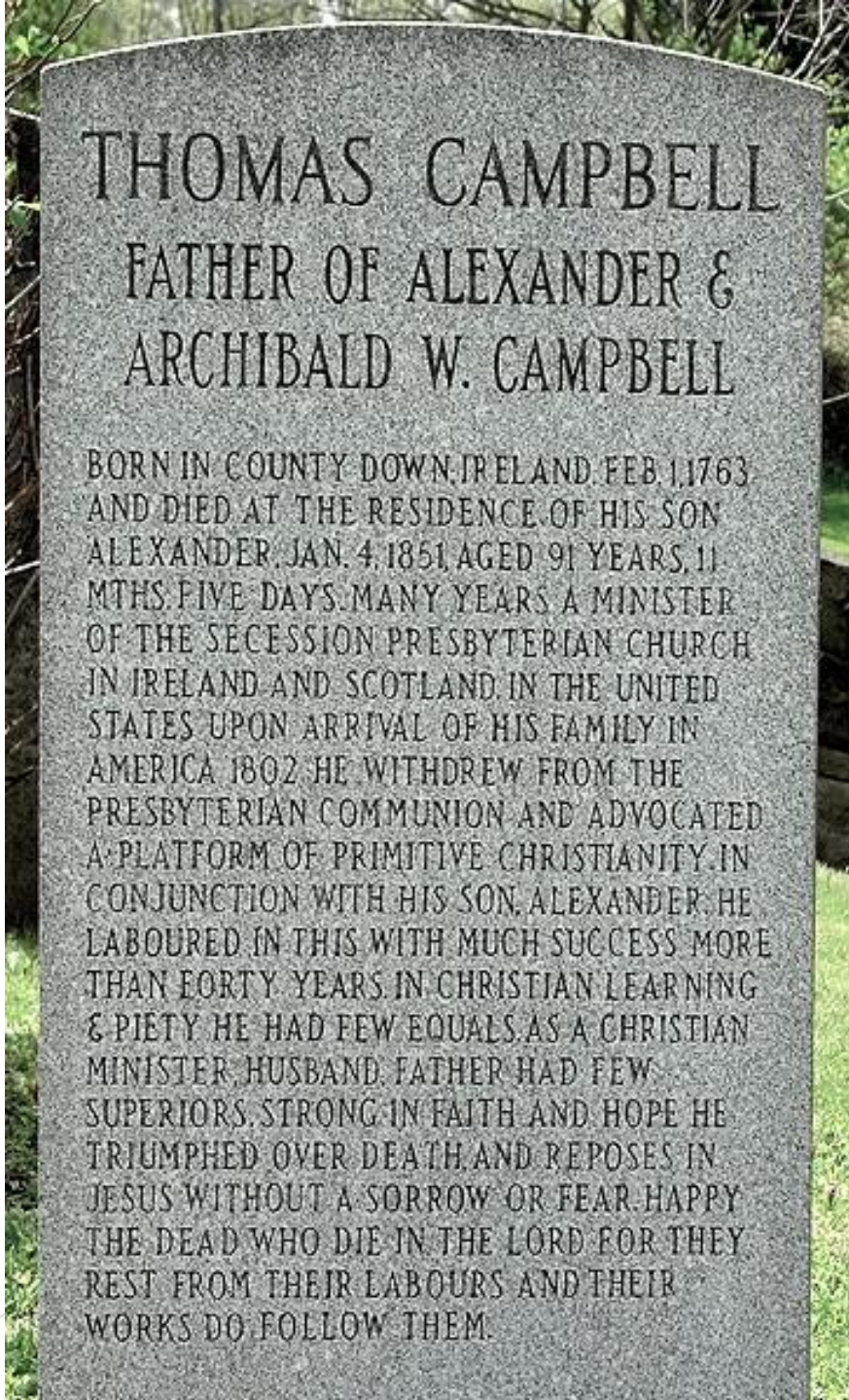
1.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조(헌법)적으로 하나이다.
2. 그리스도의 교회가 필연적으로 개별적이지만, 분열이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명시적으로 명하신 것이나 승인된 선례에 따른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신성한 의무나 친교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4. 신약성경은, 직접적이고 본래적인 속성에 있어서, 신약교회의 예배와 권징과 치리를 위한 완전한 헌법이며, 그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의무들을 위한 완전한 규범이다. 그것은, 마치 구약성경이 구약교회의 예배와 권징과 치리를 위한 것이고, 그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의무들이었던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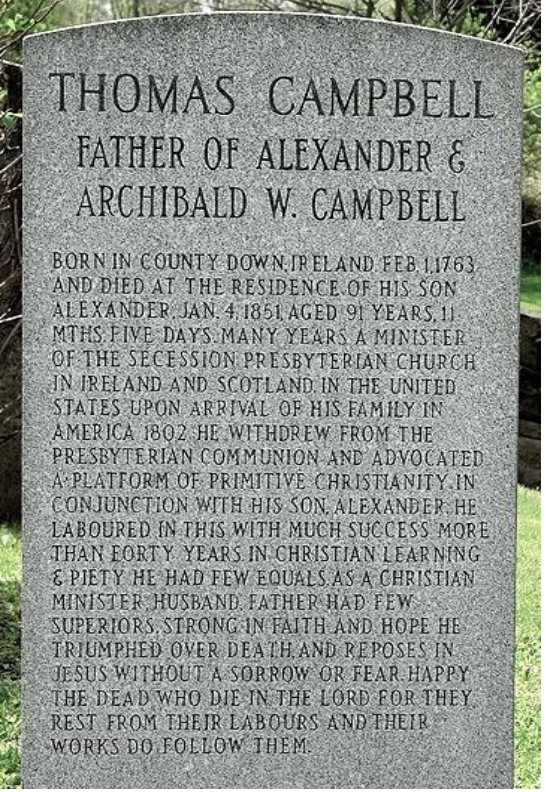
5.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어떤 인간의 권위로도 새로운 계명들이나 의식들을 강요할 수 없고, 친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6. 연역들이나 추론적인 진리들은 교회의 신앙고백 안에 어떤 자리도 가져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
7. 진리들의 체계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인간의 논리적 사고의 결과물이므로, 그것들로 친교의 조건을 삼아서는 안 된다.
8. 입교인의 자격은 성경지식에 좌우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회개, 침례, 등)하겠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9. 은혜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10. 분열은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을 낳는 끔찍한 악이다. 분열은 반(反)그리스도적이고, 반(反)성경적이며, 반(反)친화(자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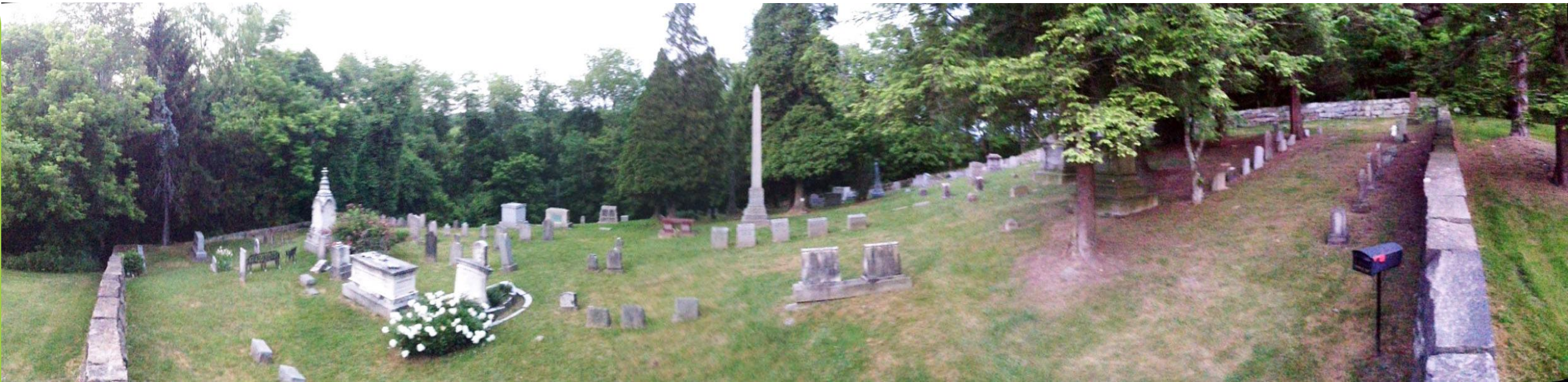
11. 인간의 의견들과 고안들을 교회의 헌법, 신앙, 예배에 도입하여 친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패와 분열의 원인들이었다.
12.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과 그분에게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없이는 입교자가 될 수 없고, 성품과 행실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교인으로 남을 수 없으며, 초대교회의 모범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의견들과 고안들을 덧붙이는 사람은 목회자로 남을 수 없다.
13. 성서가 침묵하는 곳에서 의식들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부수(정황)적 사항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채택하되 교회에 다툼이나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토마스 캠벨은 1854년 1월 4일 수요일, 한 달 부족한 91세의 일기로 별세하였다.** 그가 썼던 방과 침대는 베다니에 있는 알렉산더 캠벨의 저택에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인 1851년 6월 1일 88세 때에 베다니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였다. 이 때 그는 이미 실명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펜들턴(W.K. Pendleton)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었다.
- 그가 택한 마지막 본문의 말씀대로, 그는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사랑했다. 그는 성서의 권위회복과 교회연합을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친 인물이며, 위대한 환원사상가인 알렉산더 캠벨을 배출한 목사요, 교육가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THOMAS CAMPBELL
FATHER OF ALEXANDER &
ARCHIBALD W. CAMPBELL
BORN IN COUNTY DOWN IRELAND FEB 1 1763
AND DIED AT THE RESIDENCE OF HIS SON
ALEXANDER JAN 4 1851 AGED 91 YEARS 11
MTHS FIVE DAYS MANY YEARS A MINISTER
OF THE SECESSION PRESBYTERIAN CHURCH
IN IRELAND AND SCOTLAND IN THE UNITED
STATES UPON ARRIVAL OF HIS FAMILY IN
AMERICA 1802 HE WITHDREW FROM THE
PRESBYTERIAN COMMUNION AND ADVOCATED
A PLATFORM OF PRIMITIVE CHRISTIANITY IN
CONJUNCTION WITH HIS SON ALEXANDER HE
LABOURED IN THIS WITH MUCH SUCCESS MORE
THAN FORTY YEARS IN CHRISTIAN LEARNING
& PIETY HE HAD FEW EQUALS AS A CHRISTIAN
MINISTER HUSBAND FATHER HAD FEW
SUPERIORS STRONG IN FAITH AND HOPE HE
TRIUMPHED OVER DEATH AND REPOSES IN
JESUS WITHOUT A SORROW OR FEAR HAPPY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OR THEY
REST FROM THEIR LABOURS AND THEIR
WORKS DO FOLLOW THEM
VICTORIA II
Daughter of Elizabeth Ann
and John C. Campbell


THOMAS CAMPBELL
FATHER OF ALEXANDER &
ARCHIBALD W. CAMPBELL
BORN IN COUNTY DOWN IRELAND FEB 1 1763
AND DIED AT THE RESIDENCE OF HIS SON
ALEXANDER JAN 4 1851 AGED 91 YEARS 11
MTHS FIVE DAYS MANY YEARS A MINISTER
OF THE SECESSION PRESBYTERIAN CHURCH
IN IRELAND AND SCOTLAND IN THE UNITED
STATES UPON ARRIVAL OF HIS FAMILY IN
AMERICA 1802 HE WITHDREW FROM THE
PRESBYTERIAN COMMUNION AND ADVOCATED
A PLATFORM OF PRIMITIVE CHRISTIANITY IN
CONJUNCTION WITH HIS SON ALEXANDER HE
LABOURED IN THIS WITH MUCH SUCCESS MORE
THAN FORTY YEARS IN CHRISTIAN LEARNING
& PIETY HE HAD FEW EQUALS AS A CHRISTIAN
MINISTER HUSBAND FATHER HAD FEW
SUPERIORS STRONG IN FAITH AND HOPE HE
TRIUMPHED OVER DEATH AND REPOSES IN
JESUS WITHOUT A SORROW OR FEAR HAPPY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OR THEY
REST FROM THEIR LABOURS AND THEIR
WORKS DO FOLLOW THEM



THOMAS CAMPBELL FATHER OF ALEXANDER & ARCHIBALD W. CAMPBELL

BORN IN COUNTY DOWN. IR ELAND FEB. 1.1763 AND DIED AT THE RESIDENCE OF HIS SON ALEXANDER. JAN. 4.1851 AGED 91 YEARS, 11 MTHS. FIVE DAYS. MANY YEARS A MINISTER OF THE SECESSION PRESBYTERIAN CHURCH IN IRELAND AND SCOTLAND. IN THE UNITED STATES UPON ARRIVAL OF HIS FAMILY IN AMERICA 1807 and 1808 [sic. 1802] HE WITHDREW FROM THE PRESBYTERIAN COMMUNION AND ADVOCATED A PLATFORM OF PRIMITIVE CHRISTIANITY IN CONJUNCTION WITH HIS SON, ALEXANDER, HE LABOURED IN THIS WITH MUCH SUCCESS MORE THAN FORTY YEARS IN CHRISTIAN LEARNING & PIETY HE HAD FEW EQUALS AS A CHRISTIAN MINISTER, HUSBAND FATHER HAD FEW SUPERIORS. STRONG IN FAITH AND HOPE HE TRIUMPHED OVER DEATH AND REPOSES IN JESUS WITHOUT A SORROW OR FEAR. HAPPY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OR THEY REST FROM THEIR LABOURS AND THEIR WORKS DO FOLLOW THEM.